

#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...

- 다가오는 추석연휴, 동남아시아 여행 시 감염병 주의하세요 -

## 2019년 경기도 해외유입(동남아시아) 신고현황

2019.1.1~9.5까지 경기도에서 해외유입으로 신고된 136명 중 101명(74.3%)이

베트남, 필리핀,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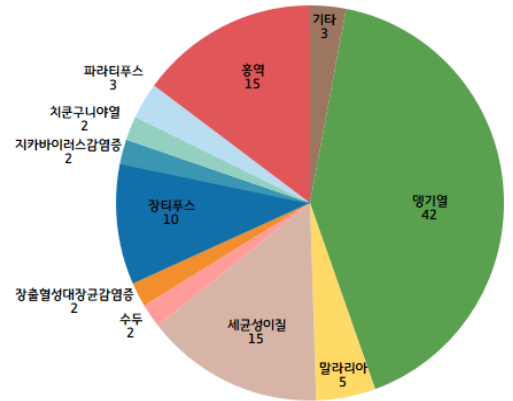
감염병별로는 뎅기열이 42명으로 가장 많이 신고되었으며,

홍역 15명, 세균성이질 15명, 장티푸스 10명 순으로 신고되었습니다.

국가별로는 필리핀 36명, 베트남 26명, 태국 13명 순으로 신고되었습니다.

이 세 나라는 동남아시아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이며,

여행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

<그림1. 경기도 해외유입(동남아시아) 신고건수>

## 지금 동남아시아는 뎅기열과 홍역 유행 중

뎅기열과 홍역이 해외유입 감염병 중 가장 많이 신고된 이유는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뎅기열과 홍역이 유행 중이기 때문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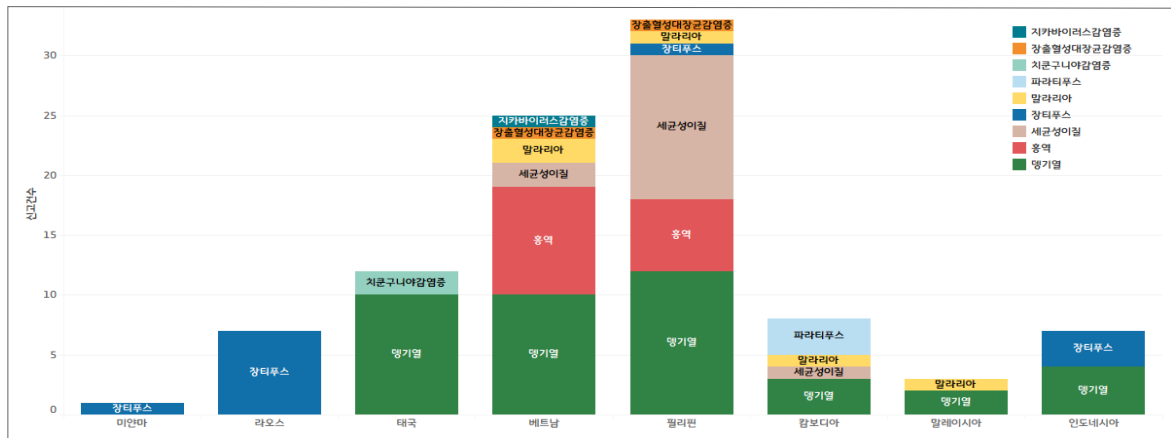
작년 9월부터 시작된 엘니뇨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뎅기열이 크게 유행하고 있으며,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으로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서 홍역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
### · 뎅기열(2019년 8월 기준)

필리핀 167,607명(사망 720명), 베트남 115,186명(사망 12명), 태국 49,174명(사망 64명), 말레이시아 75,913명(사망 111명) 발생 보고

### · 홍역(2019년 7월 기준)

필리핀 34,950명(사망 479명), 베트남 2,000명(사망 2명), 태국 2,020명(사망 8명) 발생 보고



<그림2. 국가별 경기도 해외유입(동남아시아) 신고건수(2019.1.1~2019.9.5.) >

## 다가오는 추석연휴, 동남아 여행을 계획하셨다면...

방문국에서 유행하는 감염병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출국 전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. 또한 현지에서 사용할 예방약과 예방물품을 챙기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숙지하도록 합니다.

## 여행 중에는 감염병별 예방수칙을 준수하세요!

· 뎅기열 / 지카바이러스감염증 : 모기피해제, 모기장, 방충망을 사용하고 긴소매/긴바지 착용

· 콜레라 / 장티푸스 : 물 끓여마시기, 음식 익혀 먹기,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,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

· 홍역 : 오염된 손으로 눈, 코,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고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

## 여행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...

여행 후 고열, 설사, 구토 등 감염병 증상이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☎1339)로

전화하여 상담받으세요!

